

<Book Review>

*Reading Backwards:
Figural Christology and the Fourfold Gospel Witness*

Richard B Hays,
Baylor University Press: Waco, Texas, 2014

김경식*

Richard B. Hays는 바울의 구약사용 연구에 획기적인 선을 그은 학자이다. 그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바울의 직접적인 구약인용문을 중심으로 한 구약해석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Echo(반향)이라고 명칭 되는 바울의 섬세한 구약사용에까지 확장한 학자이다. 따라서 그가 바울서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확장해 본서에서 복음서의 구약사용을 분석한 시도는 신약의 구약사용분야를 다루는 학자들에게는 관심을 끌만한 연구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서의 기독교론을 복음서 저자들의 구약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한 연구는 신선하기까지 하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론 연구는 주로 기독교적 칭호에 머물러 있거나, 구약과의 관련성에서 기독교론을 연구하는 이들은 구약 칠십인경(LXX)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주’(퀴리오스)라는 명칭이 신약의 예수께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약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헤이스가 본서에서 시도한 복음서의 기독교론과 구약사용의 관계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다. 단순한 ‘주’ 호칭의 사용 차원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신약학

행동을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께 적용한다는 점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가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봄까지 영국 Cambridge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6장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헤이스는 긴 서론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신약의 구약사상 분야의 학자들을 간단히 소개한 후, 1장에서 본격적으로 책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한다. 우선 그는 이 책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 목적은 사복음서 저자들이 구약을 읽은 방식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을 ‘묘사적 해석’(figural interpretation)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개념을 Erich Auerbach가 내린 정의를 기초로 설명한다. Auerbach에 의하면 묘사적 해석은 두 사건이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첫 번째 사건이나 사람이 또 다른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사건이나 사람이, 이전에 있던 첫 번째 사건이나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해석이다. 헤이스는 이 두 사건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언과 예표(prefiguration)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묘사적 읽기(figural reading)는 구약 저자들이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묘사적 상관성(figural correspondence)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구약본문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빛으로 구약본문을 다시 보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이스는 이런 종류의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 ‘뒤로 읽기’(reading backward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뒤로 읽기는 구약에서 출발해서 신약으로 가는 앞으로 읽기(reading forwards)와 구별되는 것으로, 신약에서 출발해서 구약본문으로 돌아가는 읽기이다. 이 개념에 의하면 두 개의 사건 혹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두 번째 사건(신약)이 발생한 후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본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1장에서 그는 자신의 해석방식을 가지고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구약본문이 신약을 읽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논쟁적일 수 있는 방식인데 신약이 구약을 읽는

방식을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사점은 구약의 원래문맥을 가지고 신약본문을 읽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이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로 드는 본문은 마가복음 11:15-19에 기록된 예수의 성전에서의 행동 즉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엮으시는 사건이다.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개의 구약본문이 인용되거나 암시된다. 첫 번째는 이사야 56:7절이고 두 번째 구약은 예레미야 7:1-8:3에 나오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어구이다. 헤이스는 이사야 본문은 예루살렘의 종말론적 회복과 이방인들의 시온산으로의 순례를 기록한 본문이고, 예레미야 본문은 성전멸망을 예언하는 문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예수의 상징적 행동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다고 해석한다. 즉 앞으로 읽기(reading forwards)를 통해 구약본문이 신약본문을 해석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헤이스는 뒤로 읽기(reading backwards)의 예로 누가복음 24:13-35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구약성경을 설명하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사건을 든다.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그의 영광에 들어갈 것(26절)이라고 가르친 후에 모세오경에서 시작해 선지서까지의 구약본문을 통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상황을 해석해 주시면서 두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헤이스에 의하면 이런 구약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구약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해서 구약본문으로 돌아가서 해석하는 뒤로 읽기(reading backwards)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사점을 지적하면서 1장을 마무리한다. (1) 복음서는 구약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이것은 구약저자나 독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의미를 구약본문에서 보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결국 헤이스가 제시하는 ‘뒤로 읽기’ 방식은 *sensus plenior*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2) 헤이스는 누가복음으로부터 구약을 읽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의 절정이 예수의 이야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3) 구약에 대한 복음서의 묘사적 읽기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이 아니라

제자공동체와 식탁교제라는 생생한 삶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헤이스는 이 책의 본문부에 해당하는 2장부터 5장에서 사복음서 저자들의 구약읽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2장은 마가복음에서의 구약사용과 기독교론의 관계를 논한다. 그는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이 복음서에 사용된 구약본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가복음이 ‘은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듯이, 마가복음이 사용하는 구약사용의 방식도 매우 비밀스럽고 간접적이며 암시적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구약이 사용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서도 마가복음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구약이 정교하게 녹아 있기 때문에, 사용된 구약본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헤이스는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마가복음이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암시적으로 사용한 구약본문들을 담고 있는 몇 개의 단락을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마가복음만의 구약성경 해석 전략을 다룬다.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구약본문들을 다루면서 헤이스는 마가복음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암시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묘사한다고 주장한다(p19). 하나님이 예수 안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은 암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약본문을 파악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마가복음 1:2-3은 인용된 이사야 40:3을 가지고서 분석하고, 마가복음 2:7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라는 개념을 출애굽기 34:6-7과 이사야 43:25를 가지고 설명한다. 또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4:35-41은 시편 107:23-32를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행동과 예수의 행동을 비교한다. 헤이스는 마가복음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는데 6장 34절을 에스겔서 34장의 목자 개념을 가지고 분석하고, 6장 45-52절은 욥기 9:4-11으로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물위를 걸어오셨지만 배위에 있는 제자들을 지나쳐서 가시려고 했던

행동을 욕기에서 하나님께서 욕을 지나쳐서 가시려고 했던 행동과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욕을 배경으로 예수의 행동을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같은 차원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가복음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된 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마가복음에 암시된 여러 구약본문을 들어 설명한다. 그렇지만 예수와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주장이 예수와 하나님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연설명하면서, 겐세마네동산에서의 예수의 기도와 십자가상의 죽음의 순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들과 아버지의 용어가 구분되고 있다는 점(p 27)을 들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마가복음은 한편으로 예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으로 묘사하는 긴장감이 있다고 분석해낸다.

마가복음에 대한 두 번째 분석단락에서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약 해석 전략을 설명한다. 헤이스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구약사용의 기능은 마가복음에 사용된 비유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비유를 사용하여 진리를 숨기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설명하신다. 헤이스는 마가복음에서 구약을 통해 예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능도 마가복음의 비유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는 마가복음의 기독론은 이 복음서에 사용된 구약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론의 의미가 상당부분 축소된다고 여긴다. 마가는 구약을 암시적(allusively)으로 사용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다름 아닌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실현이심을 알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p 33).

3장은 마태복음의 구약사용과 기독론의 관계를 다룬다. 암시적이고 간접적이었던 마가복음의 구약사용과 달리 마태복음의 구약사용은 명시적이고 분명하다고 헤이스는 밝힌다. 또한 마가복음이 암시적으로 사용하던 구약본문을 마태복음은 더 명확하게 구약사용임을 밝힌다고 주장한다(p36). 마태복음은 아무도 피해가지 못할 방식으로 예수께서 구약성경의 완성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복음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헤이스는 마태복음이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뒤로 읽어가기(reading backwards)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수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모세, 다윗 그리고 이사야의 종의 역할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주장한다(p38). 더 나아가 구약과의 관계를 통해 본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를 구약의 임마누엘과 동일시한다는 점이라고 본다. 이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의 서두, 중간, 그리고 결말부에 나오는 임마누엘 주제(1:23; 18:20; 28:20)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마태복음이 구약본문의 출처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독자들이 구약의 원래문맥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p 41). 결국 마태복음의 구약사용을 통해 헤이스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실현(embodiment)이라고 헤이스는 마태복음의 기독교론을 결론짓는다(p 53).

이어지는 4장에서 저자는 누가복음의 구약사용과 기독교론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는 누가복음의 기독교론을 연구하면서 단순히 기독교적 호칭들이나 예수의 정체에 관한 진술문들을 조사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묘사되고 있는 예수의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함을 역설한다(p57).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체화된 임재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두가지 정교한 방식을 통해 예언과 성취의 구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첫째 방식은 누가복음의 직접적인 구약 인용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하는 형식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입에서 나오는 방식이고, 둘째 방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등성은 직접적 구약인용이 아니라 암시와 반향의 방식으로 상관관계가 표현된다고 본다 (p58). 그는 무대라는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과 구약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복음서의 주요 행동들이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펼쳐질 때, 무대 뒤 스크린에서는 구약의 다양한 배경들이 희미하게 조명으로 비춰지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에 익숙한 사람

들은 복음서의 사건과 행동을 보면서 구약과 흡사하다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p 59).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이 '예언'하고 신약이 '성취'하는 구도를 지닌 것이지만, 누가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의 예언과 성취의 구도가 아닌, '약속'과 '성취'의 구도에 있다고 헤이스는 주장한다(p 99). 그는 기존의 신약 학자들이 주장한 누가복음에 저 기독교론(low christology)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구약의 섬세한 사용을 제대로 보면 누가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겨지던 행동들을 예수께 적용함으로써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보는 기독교론을 가지고 있다고 반격한다(p 72). 동시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동등되게 보이지 않는 자료들("non-divine-identity" material)을 삭제함으로써 고 기독교론적 특징을 더 선명하게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의 구약사용을 통해 본 기독교론은 예수께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묘사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헤이스는 설명한다.

요한복음을 다루는 5장에서 헤이스는 요한복음의 구약사용을 분석해 보면 직접적인 구약인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구약에 호소하는 방식은 단어나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미지나 인물들을 연상시키는 방식이라고 밝힌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구약을 청각이 아닌 시각적인 면에 호소한다는 것이다(p.78). 헤이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유대교를 폐기하거나 유대교의 의미를 새로운 의미로 대체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대신에 요한의 구약사용을 주목해 보면 오히려 예수의 정체성은 구약 본문과 전승 특히 예루살렘성전과 유대인들의 절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파한다(p82).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성전이 되었으며, 또한 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와 연합하도록 우리를 모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는 복음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선명하게 요한복음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빛 아래서, 구약에로의 거꾸로 읽기(reading back-

wards)를 요청하는 복음서이며 그래야만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복음서임을 역설한다(p85-86).

마지막 6장은 본서의 결론으로 사복음서에 사용된 구약사용을 통해 본 기독교론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헤이스는 자신이 분석한 복음서 각 저자들의 구약사용의 특징과 기독교론적 독특성을 요약하면서 각 복음서들의 구약사용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10가지 방식을 제안하며 책을 마무리 한다. (1) 우리는 구약을 거꾸로 읽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의 이야기의 빛 아래서 구약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2) 구약은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3) 독자로서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사이의 관계, 즉 본문상호성(intertextuality)에 더 집중해야 한다. (4) 구약은 단순히 율법이나 개념 혹은 이미지만을 담고 있는 고대 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세계에 관한 ‘이야기’(story)를 담고 있다. (5) 복음서 저자들의 이스라엘의 이야기(story)에 대한 거꾸로 읽기(retrospective reinterpretation)는 그 이야기의 부정이거나 폐기가 아니라 변형과 지속이다. (6)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을 통합된 전체로 보지만, 각 저자들이 구약을 읽는 방식은 각각 독특성이 있다. (7)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하는 구약본문형태는 대체로 칠십인경(LXX)이다. (8)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하는 구약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약 원래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9) 복음서에 사용되는 구약본문에 관심을 집중하면 복음서 저자들이 구약을 사용하여 예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을 접근하면서 항상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리처드 헤이스는 본서에서 복음서의 기독교론을 구약사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기독교론 연구의 신선한 방식을 통해 사복음서 저자들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묘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묘사적 기독교론(figural christology)이라는 개념은 단

순히 명제적 진술문이나 칭호에 머물렀던 기독교 연구의 영역을 넘어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의 행동을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행동과 비교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신약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권과 하나님을 묘사하는 행동을 예수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나 복음서 저자들의 기독교론을 이해하려면 구약본문의 문맥과 그 빛 아래서 신약본문을 해석해야 함을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가 제시한 거꾸로 읽기(*reading backwards*)라는 개념은 사실 그가 만든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음서 저자들과 예수의 구약읽기 방식을 논증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구약의 의미를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빛으로 읽을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은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거꾸로 읽기 방식은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시면서 메시아의 죽음과 그의 영광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의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회상의 주제(2:17,22)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본서는 신약에서 출발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으로 구약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방식인 ‘뒤로 읽기’(*reading backwards*) 해석이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헤이스에 의하면 복음서 저자들은 *sensus plenior*(더 충만한 의미)로 구약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저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약저자들이 후대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된 현상이 있었음을 본서는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스의 논증방식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우선 그가 주장하는 신약본문에 암시되는 구약본문들이 누구의 구약 사용인지 설명이 모호하다. 다시 말해 신약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구약본문인지 아니면 헤이스 자신이 이해한 구약본문들의 사용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논증을 펼친다. 예를 들면 그는 누가복음의 구약사용을 다루면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묘사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구원자라는 본문들을 여러 개 나열한다(p73-74). 그렇다면 단어 하나 혹은 둘이 신약과 구약사이에 같으면, 이 단어(들)가 나오는 모든 본문이 신약본문에서 자동적으로 유추되거나 연상되는지 의심스럽다(p67). 복음서 저자의 의도적 구약사용과 헤이스가 가능한 구약본문배경이라고 제시하는 구약본문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또한, 그의 거꾸로 읽기 방식은 초대교회의 구약 해석방식을 설명하면서 구약과는 다른 의미가 신약에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단순히 신약저자들이 구약본문에 자신들의 신학을 주입해서 구약본문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신약저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사건의 빛으로 구약본문을 다시 읽어 보니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의미이지만, 분명히 구약본문에 내재되어 있던 의미를 발견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결국 복음서 저자들이 구약본문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 것인가 아니면 본래 내재해 있던 의미를 발견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헤이스의 책은 복음서의 기독교 연구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의 구약 사용 연구에도 독자들의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다. 본서는 복음서의 기독교론이라는 주제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의 구약사용에 관한 보다 폭넓은 논의는 그의 또 다른 책 (*Echoes of Scriptures in the Gospels*, 2016)을 통해 접해야 할 것이다.

Richard B. Hays는 바울의 구약사용 연구에 획기적인 선을 그은 학자이다. 그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바울의 직접적인 구약인용문을 중심으로 한 구약해석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Echo(반향)이라고 명칭 되는 바울의 섬세한 구약사용에까지 확장한 학자이다. 따라서 그가 바울서신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확장해 본서에서 복음서의 구약사용을 분석한 시도는 신약의 구약 사용분야를 다루는 학자들에게는 관심을 끌만한 연구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서의 기독교론을 복음서 저자들의 구약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실시한

연구는 신선하기까지 하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연구는 주로 기독교적 칭호에 머물러 있거나, 구약과의 관련성에서 기독교를 연구하는 이들은 구약 칠십인경(LXX)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주’(퀴리오스)라는 명칭이 신약의 예수께 적용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약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헤이스가 본서에서 시도한 복음서의 기독교론과 구약사용의 관계는 차원이 다른 접근이다. 단순한 ‘주’ 호칭의 사용 차원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행동을 신약에서 그대로 예수께 적용한다는 점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가 2013년 가을부터 2014년 봄까지 영국 Cambridge 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6장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헤이스는 긴 서론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신약의 구약사용 분야의 학자들을 간단히 소개한 후, 1장에서 본격적으로 책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들을 소개한다. 우선 그는 이 책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 목적은 사 복음서 저자들이 구약을 읽은 방식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을 ‘묘사적 해석’(figural interpretation)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개념을 Erich Auerbach가 내린 정의를 기초로 설명한다. Auerbach에 의하면 묘사적 해석은 두 사건이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첫 번째 사건이나 사람이 또 다른 것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사건이나 사람이, 이전에 있던 첫 번째 사건이나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해석이다. 헤이스는 이 두 사건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언과 예표(prefiguration)를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묘사적 읽기(figural reading)는 구약 저자들이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을 찾는 작업이 아니라고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묘사적 상관성(figural correspondence)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구약본문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빛으로 구약본문을 다시 보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헤이스는 이런 종류의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 ‘뒤로 읽기’(reading backward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뒤로 읽기는 구약에서

출발해서 신약으로 가는 앞으로 읽기(reading forwards)와 구별되는 것으로, 신약에서 출발해서 구약본문으로 돌아가는 읽기이다. 이 개념에 의하면 두 개의 사건 혹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두 번째 사건(신약)이 발생한 후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본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1장에서 그는 자신의 해석방식을 가지고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구약본문이 신약을 읽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논쟁적일 수 있는 방식인데 신약이 구약을 읽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첫 번째 시사점은 구약의 원래문맥을 가지고 신약본문을 읽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가 이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로 드는 본문은 마가복음 11:15-19에 기록된 예수의 성전에서의 행동 즉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없으시는 사건이다. 이 본문에 기록된 예수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개의 구약본문이 인용되거나 암시된다. 첫 번째는 이사야 56:7절이고 두 번째 구약은 예레미야 7:1-8:3에 나오는 ‘강도의 소굴’이라는 어구이다. 헤이스는 이사야 본문은 예루살렘의 종말론적 회복과 이방인들의 시온산으로의 순례를 기록한 본문이고, 예레미야 본문은 성전멸망을 예언하는 문맥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예수의 상징적 행동 속에 이 두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다고 해석한다. 즉 앞으로 읽기(reading forwards)를 통해 구약문맥이 신약본문을 해석하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헤이스는 뒤로 읽기(reading backwards)의 예로 누가복음 24:13-35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구약성경을 설명하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사건을 든다. 예수께서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그의 영광에 들어갈 것(26절)이라고 가르친 후에 모세오경에서 시작해 선지서까지의 구약본문을 통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사항을 해석해 주시면서 두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다. 헤이스에 의하면 이런 구약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구약본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못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서 시작해서 구약본문으로 돌아가서 해석하는 뒤로 읽기(reading backwards)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사점을

지적하면서 1장을 마무리한다. (1) 복음서는 구약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가르쳐준다. 이것은 구약저자나 독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의미를 구약본문에서 보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결국 헤이스가 제시하는 ‘뒤로 읽기’ 방식은 *sensus plenior*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다. (2) 헤이스는 누가복음으로부터 구약을 읽는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이야기의 절정이 예수의 이야기에 있다고 주장한다. (3) 구약에 대한 복음서의 묘사적 읽기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이 아니라 제자공동체와 식탁교제라는 생생한 삶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헤이스는 이 책의 본문부에 해당하는 2장부터 5장에서 사복음서 저자들의 구약읽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2장은 마가복음에서의 구약사용과 기독교론의 관계를 논한다. 그는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이 복음서에 사용된 구약본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가복음이 ‘은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듯이, 마가복음이 사용하는 구약사용의 방식도 매우 비밀스럽고 간접적이며 암시적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구약이 사용되고 있음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서도 마가복음의 서사를 이해할 수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구약이 정교하게 녹아 있기 때문에 사용된 구약본문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헤이스는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먼저 마가복음이 예수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해 암시적으로 사용한 구약본문들을 담고 있는 몇 개의 단락을 분석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마가복음판의 구약성경 해석 전략을 다룬다.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는 구약본문들을 다루면서 헤이스는 마가복음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암시적인 방식으로 예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묘사한다고 주장한다(p19). 하나님이 예수 안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은 암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약본문을 파악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비밀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마가복음 1:2-3은 인용된 이사가

40:3을 가지고서 분석하고, 마가복음 2:7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라는 개념을 출애굽기 34:6-7과 이사야 43:25를 가지고 설명한다. 또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4:35-41은 시편 107:23-32를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의 행동과 예수의 행동을 비교한다. 헤이스는 마가복음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다루는데 6장 34절을 에스겔서 34장의 목자 개념을 가지고 분석하고, 6장 45-52절은 욥기 9:4-11으로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물위를 걸어오셨지만 배위에 있는 제자들을 지나쳐서 가시려고 했던 행동을 욥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지나쳐서 가시려고 했던 행동과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욥을 배경으로 예수의 행동을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행동과 같은 차원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마가복음은 결국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된 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마가복음에 암시된 여러 구약본문을 들어 설명한다. 그렇지만 예수와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주장이 예수와 하나님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연설명하면서, 겟세마네동산에서의 예수의 기도와 십자가상의 죽음의 순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들과 아버지의 용어가 구분되고 있다는 점(p 27)을 들어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마가복음은 한편으로 예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으로 묘사하는 긴장감이 있다고 분석해 낸다.

마가복음에 대한 두 번째 분석단락에서는 마가복음의 독특한 구약 해석 전략을 설명한다. 헤이스에 의하면 마가복음의 구약사용의 기능은 마가복음에 사용된 비유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는 비유를 사용하여 진리를 숨기기도 하고 알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설명하신다. 헤이스는 마가복음에서 구약을 통해 예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능도 마가복음의 비유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는 마가복음의 기독교론은 이 복음서에 사용된 구약본문을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론의 의미가 상당부분 축소된다고 여긴다. 마가는 구약을 암시적(allusively)으로 사용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다름 아닌 구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실현이심을

알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결론 내린다(p 33).

3장은 마태복음의 구약사용과 기독교론의 관계를 다룬다. 암시적이고 간접적이었던 마가복음의 구약사용과 달리 마태복음의 구약사용은 명시적이고 분명하다고 헤이스는 밝힌다. 또한 마가복음이 암시적으로 사용하던 구약본문을 마태복음은 더 명확하게 구약사용임을 밝힌다고 주장한다(p36). 마태복음은 아무도 피해가지 못할 방식으로 예수께서 구약성경의 완성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복음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헤이스는 마태복음이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뒤로 읽어가기(reading backwards)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수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특히 모세, 다윗 그리고 이사야의 종의 역할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주장한다(p38). 더 나아가 구약과의 관계를 통해 본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를 구약의 임마누엘과 동일시한다는 점이라고 본다. 이 같은 사실은 마태복음의 서두, 중간, 그리고 결말부에 나오는 임마누엘 주제(1:23; 18:20; 28:20)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마태복음이 구약본문의 출처를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독자들이 구약의 원래 문맥을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p 41). 결국 마태복음의 구약사용을 통해 헤이스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면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실현(embodiment)이라고 헤이스는 마태복음의 기독교론을 결론짓는다(p 53).

이어지는 4장에서 저자는 누가복음의 구약사용과 기독교론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다. 그는 누가복음의 기독교론을 연구하면서 단순히 기독교론적 호칭들이나 예수의 정체에 관한 진술문들을 조사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묘사되고 있는 예수의 정체성(narrative identity)을 찾는 작업을 해야 함을 역설한다(p57).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체화된 임재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누가복음은 두가지 정교한 방식을 통해 예언과 성취의 구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첫째 방식은 누가복음의 직접적인

구약 인용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하는 형식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입에서 나오는 방식이고, 둘째 방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등성은 직접적 구약인용이 아니라 암시와 반향의 방식으로 상관관계가 표현된다고 본다(p58). 그는 무대라는 비유를 통해 누가복음과 구약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즉 복음서의 주요 행동들이 무대에서 조명을 받으며 펼쳐질 때, 무대 뒤 스크린에서는 구약의 다양한 배경들이 희미하게 조명으로 비춰지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기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은 복음서의 사건과 행동을 보면서 구약과 흡사하다는 장면을 떠올리게 된다(p 59).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이 '예언'하고 신약이 '성취'하는 구도를 지닌 것이지만, 누가복음의 특징은 마태복음의 예언과 성취의 구도가 아닌, '약속'과 '성취'의 구도에 있다고 헤이스는 주장한다(p 99). 그는 기존의 신약 학자들이 주장한 누가복음에 저 기독교론(low christology)이 존재한다는 견해를 반박하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구약의 섬세한 사용을 제대로 보면 누가는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특권으로 여겨지던 행동들을 예수께 적용함으로써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보는 기독교론을 가지고 있다고 반격한다(p 72). 동시에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사이의 동등되게 보이지 않는 자료들("non-divine-identity" material)을 삭제함으로써 고 기독교론적 특징을 더 선명하게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누가복음의 구약사용을 통해 본 기독교론은 예수께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묘사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헤이스는 설명한다.

요한복음을 다루는 5장에서 헤이스는 요한복음의 구약사용을 분석해 보면 직접적인 구약인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본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구약에 호소하는 방식은 단어나 어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미지나 인물들을 연상시키는 방식이라고 밝힌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은 구약을 청각이 아닌 시각적인 면에 호소한다는 것이다(p.78). 헤이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유대교를 폐기하거나 유대교의 의미를 새로운 의미로 대체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대신에 요한의 구약사용을 주목해 보면 오히려 예수의

정체성은 구약 본문과 전승 특히 예루살렘성전과 유대인들의 절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파한다(p82).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궁극적으로 성전이 되셨으며, 또한 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와 연합하도록 우리를 모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는 복음서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선명하게 요한복음은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빛 아래서, 구약에로의 거꾸로 읽기(reading backwards)를 요청하는 복음서이며 그래야만 예수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복음서임을 역설한다(p85-86).

마지막 6장은 본서의 결론으로 사복음서에 사용된 구약사용을 통해 본 기독교론을 종합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헤이스는 자신이 분석한 복음서 각 저자들의 구약사용의 특징과 기독교적 독특성을 요약하면서 각 복음서들의 구약사용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은 10가지 방식을 제안하며 책을 마무리 한다. (1) 우리는 구약을 거꾸로 읽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의 이야기의 빛 아래서 구약성경을 재해석해야 한다. (2) 구약은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서 재해석되어야 한다. (3) 독자로서 우리들은 구약과 신약사이의 관계, 즉 본문상호성(intertextuality)에 더 집중해야 한다. (4) 구약은 단순히 율법이나 개념 혹은 이미지만을 담고 있는 고대 문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 세계에 관한 ‘이야기’(story)를 담고 있다. (5) 복음서 저자들의 이스라엘의 이야기(story)에 대한 거꾸로 읽기(retrospective reinterpretation)는 그 이야기의 부정이거나 폐기가 아니라 변형과 지속이다. (6)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을 통합된 전체로 보지만, 각 저자들이 구약을 읽는 방식은 각각 독특성이 있다. (7)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하는 구약본문형태는 대체로 칠십인경(LXX)이다. (8)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하는 구약본문을 이해하려면 구약 원래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9) 복음서에 사용되는 구약본문에 관심을 집중하면 복음서 저자들이 구약을 사용하여 예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10) 복음서 저자들은 구약을 접근하면서 항상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리처드 헤이스는 본서에서 복음서의 기독교론을 구약사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기독교론 연구의 신선한 방식을 통해 사복음서 저자들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묘사한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묘사적 기독교론(figural christology)라는 개념은 단순히 명제적 진술문이나 칭호에 머물렀던 기독교론 연구의 영역을 넘어,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의 행동을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행동과 비교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신약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권과 하나님을 묘사하는 행동을 예수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나 복음서 저자들의 기독교론을 이해하려면 구약본문의 문맥과 그 빛 아래서 신약본문을 해석해야 함을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그가 제시한 거꾸로 읽기(reading backwards)라는 개념은 사실 그가 만든 개념이라기보다는 복음서 저자들과 예수의 구약읽기 방식을 논증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구약의 의미를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빛으로 읽을 때 그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은 논쟁이 될 수 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거꾸로 읽기 방식은 이미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주시면서 메시아의 죽음과 그의 영광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의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회상의 주제(2:17, 22)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본서는 신약에서 출발해,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관점으로 구약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방식인 ‘뒤로 읽기’(reading backwards) 해석이 초대교회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헤이스에 의하면 복음서 저자들은 *sensus plenior*(더 충만한 의미)로 구약을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저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약저자들이 후대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구약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된 현상이 있었음을 본서는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스의 논증방식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 우선 그가 주장하는 신약본문에 암시되는 구약본문들이 누구의 구약사용인지 설명이 모호하다. 다시 말해 신약저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구약본문인지 아니면 헤이스 자신이 이해한 구약본문들의 사용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논증을 펼친다. 예를 들면 그는 누가복음의 구약사용을 다루면서 예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묘사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구원자라는 본문들을 여러 개 나열한다 (p73-74). 그렇다면 단어 하나 혹은 둘이 신약과 구약사이에 같으면, 이 단어(들)가 나오는 모든 본문이 신약본문에서 자동적으로 유추되거나 연상되는지 의심스럽다(p67). 복음서 저자의 의도적 구약사용과 헤이스가 가능한 구약본문배경이라고 제시하는 구약본문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

또한, 그의 거꾸로 읽기 방식은 초대교회의 구약 해석방식을 설명하면서 구약과는 다른 의미가 신약에서 도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작업이다. 하지만, 단순히 신약저자들이 구약본문에 자신들의 신학을 주입해서 구약본문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한 것인지, 아니면 신약저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사건의 빛으로 구약본문을 다시 읽어 보니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의미이지만, 분명히 구약본문에 내재되어 있던 의미를 발견한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결국 복음서 저자들이 구약본문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인 것인가 아니면 본래 내재해 있던 의미를 발견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헤이스의 책은 복음서의 기독교 연구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의 구약사용 연구에도 독자들의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다. 본서는 복음서의 기독교론이라는 주제에 국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의 구약사용에 관한 보다 폭넓은 논의는 그의 또 다른 책 (*Echoes of Scriptures in the Gospels*, 2016)을 통해 접해야 할 것이다.

<초록>

Book Review, *Richard B. Hays, Reading Backwards: Figural Christology and the Fourfold Gospel Witness,*

김경식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교수)

리처드 헤이스는 본서에서 복음서의 기독론을 구약사용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기독론 연구의 신선한 방식을 통해 사복음서 저자들이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 된 분으로 묘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그가 제시한 묘사적 기독론(figural christology)라는 개념은 단순히 명제적 진술문이나 칭호에 머물렀던 기독론 연구의 영역을 넘어,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의 행동을 신약에 나타난 예수의 행동과 비교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신약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특권과 하나님을 묘사하는 행동을 예수께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나 복음서 저자들의 기독론을 이해하려면 구약본문의 문맥과 그 빛 아래서 신약 본문을 해석해야 함을 통찰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헤이스의 책은 복음서의 기독론 연구뿐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의 구약사용 연구에도 독자들의 이해의 지평을 열어주는 책이다.